

1995년2월7일(화) 오전7시30분 장소 :



‘정치 사절’ 사월회 주최 토론회서 이회창 전 총리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.

2 “남은 세금 복지에 써야” 95.2.14 1조5천억 잉여금, 정부 일방적 사용

정부가 국민한테서 더 걷은 세금을 복지 부문에서 안쓰고 자본지원 부문에 주로 쓰고 있어 사용처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.

7일 재경원 예산실에 따르면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1조5천여 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계잉여금이란 당초 예산상의 목표보다 더 걷힌 세금과 예산에 반영됐으나 실제로 쓰이지 않은 돈(예산불용액)에 벌금, 추징금 등의 기타 수입을 합친 것이다. 작년의 경우 초과 징수세액은 1조1천억원, 예산불용액 및 기타수입은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.

1조5천억원이면 국가의 조세 수입 총액의 5%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. 94년 사회복지(국가유공자 지원 포함) 부문 예산지출이 총 2조5천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.

이처럼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데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“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져 소득세, 부가세, 법인세 등이 더 걷힌 것”이라고 설명하고

있다. 이 관계자는 또한 “현재 결산 작업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이달말께 발표하겠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세계잉여금이 큰 규모로 발생한 원인을 단순히 경기회복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.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형표 연구위원은 “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수입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”이라고 지적했다. 또한 그는 “최근 들어 본예산의 증가는 가급적 피하고 국회심사를 받지 않는 특별회계, 기금등의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예산의 세입도 과소계상됐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결국 편법적인 예산 운용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.

또한 주어진 예산을 어떤 식으로도 다 쓰는 행정풍토에서 예산불용액이 4천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.

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잉여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.

3면으로 계속됨